



땅 끝, 우루과이에서 보내는 4월 기도편지

[눅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 디오스 벤디가! Dios bendiga!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2월 28일에 우루과이에 잘 도착했습니다. 선교지로 돌아오며 감사했던 것은, 선교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생긴 긴장감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큰 교통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고, 저희 또한 경미한 접촉 사고를 당해서 방어운전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돌아와 도로 상태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화 충격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거리를 설정해 주셔서 우루과이를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멈춤'을 통해서 '회복'과 '새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새마을교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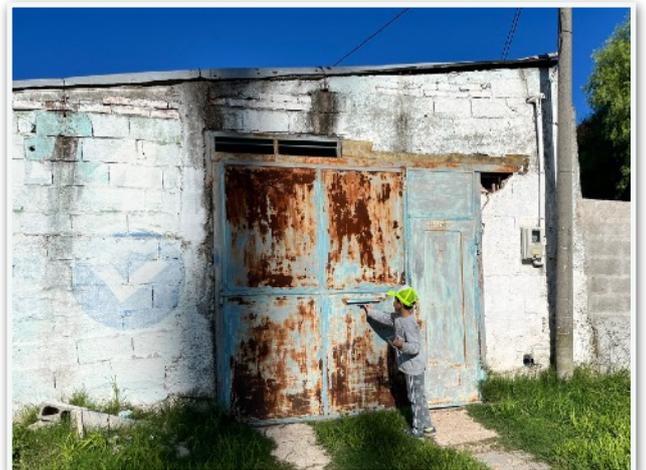
1) 바나바훈련



새마을 교회 마리엘라 사모님께서 바나바 훈련을 아르헨티나에서 받고 있습니다. 남미 연합 신학교 졸업 이후 첫 번째 영적 공급을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은혜를 받으니, 교회 공동체가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마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전교인 전도

성도님이 전도를 위해서 여러 번 모였습니다. 전도에 대한 방법을 의논하며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속적 환경이 주는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축구 친선 경기 때 브라질을 승리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응원하며 투지를 불사릅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하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패배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며, 전교인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지민이도 함께 기쁨으로 전도지를 주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전도를 통해서 두 명의 영혼을 보내 주셨습니다.



3. WMTC 연합선교회



지난 3월 22일~23일 WMTC 선교 단체에서 신학 연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존 김 선교사님과 평촌 이레성결교회 한홍식 목사 부부가 강사로 오셨습니다. 선교 사역의 열매는 선교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경험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를 세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복음전도를 위해 스페인어 성경을 암송하고 있던 저에게 영적 진보를 더해 주셨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몇 분의 눈물로 은혜받는 모습을 보며, 현지 목사님에게 은혜의 수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4. 선교사 가정 이야기

황지원 선교사를 제외한 가족 세명이 열과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5. 기도 제목

- 1)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우루과이에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임시 영주권을 받았지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 마무리 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 4) 남미 연합 신학교 7월 15일 아르헨티나에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중보 부탁드립니다.

♥ 함께해주세요 ♥

국민은행 82599085841464 (정동성 가상계좌)

예금주: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첫 송금시 선교국(02-3459-1031~4)으로 정동성/황지원 선교사 후원(생활비 및 사역비)임을 꼭 알려주세요

